

# 고서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 검색 기능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earch Interface of Archival Databases in Korea: With a Focus on Search Functions

윤 정 옥(Cheong-Ok Yoon)\*\*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3. 검색 화면과 서지 레코드      |
| 1. 연구의 방법과 내용     | III. 검색 관련 표준 기능성의 비교 |
| 2. 선행연구           | 1. 기본 검색 기능           |
| II.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 2. 연산자 사용             |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개요 | 3. 결과 정렬              |
| 1. 일반적 특성         | 4. 검색 결과의 처리 기능       |
| 2. 자료의 분류와 기술     | IV. 맺음말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두 고서 관련 정보 시스템의 검색 인터페이스 기능과 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이다. Breeding의 OPAC 표준 기능성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검색 관련 열한 개 항목을 네 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키워드 검색, 질의에서 불리안 연산자 사용, 시대순 결과 정렬, 초기 단어 재입력 않고 탐색 수정 기능, 결과 집합 내 검색, 및 개별 도서관이나 장소로 결과 제한 가능 등 여섯 개 기능성은 두 시스템 모두 제공하였으나, 저자, 서명, 주제 브라우즈와 현재 세션의 검색 이력 보기와 불러오기는 두 시스템 다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은 OPAC의 표준 기능성 및 차세대 OPAC 기능성 반영, 이용자 요구와 정보추구행태의 심층적 분석, 주제 접근성 강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고서목록, 검색 인터페이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주제 접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search interfaces of Korean Old and Rare Collection Information System(KORCIS) and Korean History Online. The checklist of OPAC functionalities proposed by Breeding was used to examine eleven functions of these systems. Both system provide the following functions: Search by keywords ; Boolean operators in queries ; Order results chronologically ; Modify search without re-keying the initial terms ; Search within result sets ; and Ability to limit results to an individual library or education. They do not provide such functions as Browse by author, title, subject and View and recall the search history for the current session. Adoption of standard OPAC and next-generation catalog functionalities, in-depth understanding of user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nd the improvement of subject access to these system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Keywords: Archival OPAC, Search Interface, Aboutness, Subject Access

\* 이 논문은 2010-2011학년도에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교수(jade@cju.ac.kr)

• 접수일: 2011년 5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1년 6월 4일 • 최종심사일: 2011년 6월 28일

## I. 머리말

도서관 목록은 이용자와 장서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다. 오늘날 대부분 도서관의 목록이 웹 상에서 Online Public Access Catalog(이하 OPAC이라 함)의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들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자신이 원하는 도서관의 목록을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의 소재 및 이용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웹 상에서 접근 가능한 OPAC이라는 형태의 목록이 보편화된 것은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며, 이를 기점으로 이전까지 가져왔던 목록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변화하게 되었다.

OCLC의 연구 전략 책임자인 Dempsey는 목록은 언제나 도서관에서 중요한 초점 사항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구축과 생산이 역사적인 도서관 실무와 정체성의 핵심적 부분이었으나,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자원이 드물었고 목록된 자원은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서관의 실재하는 자원이었던 네트워크 이전 시대에 형성된 목록의 기본 형태는 지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말하자면 지금은 특정한 도서관이나 그것의 목록이 아닌 네트워크 자체가 이용자 관심의 핵심이고, “이용가능한(available)” 자원이란 이용자와 인접한 곳의 목록된 컬렉션보다 훨씬 크고 광범한 자원을 의미하며, 이용자들은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발견(discover)”하고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변화에 부응하여 최근에는 이른바 ‘차세대 목록(Next Generation Catalog)’의 개념이 등장하고, 확장된 콘텐츠, 검색결과의 적합성 순위화, 패킷 네비게이션, 이용자 참여기능 등 각종 새로운 정보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를 OPAC 인터페이스에 접목하는 등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sup>2)</sup>

도서관의 일반적 이용자들만이 아니라, 아카이브와 전문컬렉션처럼 특별한 정보원의 이용자들도 분명 변화하고 있음은 OCLC 연구부의 Schaffner가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난 삼십여 년 동안 수행된 아카이브와 전문컬렉션의 이용자 연구들을 리뷰하고, 이들의 연구 행태 및 전략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이전에 이용자들은 저장소(repositories)를 방문함으로써만, 그리고 인쇄된 목록이나 안내서를 찾아봄으로써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에서, 온라인 목록과 포털을 사용하는 발견의 단계로 나아갔고, 이제는 웹에서 발견한다고 하였다.<sup>3)</sup>

1) Lorcan Dempsey, “The Library Catalogue in the New Discovery Environment: Some Thoughts,” *Ariadne*, Issue 48(2006), <<http://www.ariadne.ac.uk/issue48/dempsey/>> [cited 2011. 5. 10].

2) Marshall Breeding, “Next-Generation Library Catalogs,” *Library Technology Reports*, Vol.43, No.4(July/August 2007), pp.1-44. ; 심경,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 AquaBrowser,” *도서관문화*, 제49권, 제10호(2008. 8), pp.48-56. ; 심경,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사례(2): WorldCat Local,” *도서관문화*, 제49권, 제11호(2008. 9), pp.54-61. ; 윤정옥, “차세대 도서관 목록 사례의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10. 3), pp.1-24.

3) Jennifer Schaffner, *The Metadata is the Interface: Better Description for Better Discovery of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Synthesized from User Studies*, May 2009, Report produced by OCLC Research,

이처럼 이용자가 변화하고 그것에 맞추어 도서관의 일반적 OPAC이 빠르게 진화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서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자료를 위한 목록도 동일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는 검토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분야의 중요한 정보자원 가운데 하나인 고서는 일반적으로 고문헌이라고도 하며 현대적 성격의 문헌과 다른 형태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지칭한다.<sup>4)</sup> 오늘날 대부분의 OPAC들이 수용하고 있는 문헌들과는 달리 고서와 같은 전적류 기록문화 유산은 전문가 중심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훼손, 인멸, 도난 등에 대비한 '보존관리' 대상인 중요 자료로서 목록화되어야 할 자료들이다.<sup>5)</sup> 따라서 고서목록은 목록화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원문 자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직접적 접근과 이용에 따른 훼손의 가속화를 방지하고, 보존과 접근이라는 양면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 기대되는 발견도구라 할 수 있다.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서목록이 검색이나 접근 등과 관련된 OPAC과 같은 발견도구의 표준화된 기능성을 수용하고 있는지는 연구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고서 관련 자료를 온라인화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한 발견도구로서 가장 큰 규모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용 OPAC인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정보포털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서 검색 관련 기능을 비교 및 분석하여, 이들이 고서라는 특수한 자료의 발견도구로서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 1.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연구에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일반적인 검색 기능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는 미국 밴더빌트 대학의 Breeding이 제시한 OPAC의 표준 기능성<sup>6)</sup> 체크리스트 가운데 검색 관련 항목 열한 개를 사용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Breeding이 2000년대 중반 미국 및 유럽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상용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들의 기능성을 분석하고 제시한 것들이다.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이 '완전히 성숙함'에 따라 대부분의 OPAC들이 이러한 표준 기능성을 모두 제공하며, 이제는 확장된 서지 디스플레이, 확장된 콘텐츠, SDI 기능, 이용자 인터페이스 언어변경, 결과 세트나 개별 레코드의 저장이나 이메일 등 다양한 기능까지도 거의 모두 수용해가는 단계라고 하였다.<sup>7)</sup>

〈<http://www.oclc.org/programs/publications/reports/2009-06.pdf>〉 [cited 2011. 5. 20].

4) 강순애, "한국 고문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4호(1997. 12), pp.83-117, p.84.

5) 문화재청, 고서·고문서 조사편람(서울 : 문화재청, 2009).

6) Marshall Breeding, "Integrated Library Software: A Guide to Multiuser, Multifunction Systems," *Library Technology Reports*, Vol.40, No.1(2004), pp.56-57.

7) *Ibid.*, pp.56-59.

이 연구에서는 그 분석 대상이 일반 대출을 하지 않는 고서용 OPAC과 정보포털이므로 Breeding 이 제시한 표준 기능성 열여섯 개 항목 가운데 상호참조, 레코드와 색인 디스플레이 조정, 도움말 디스플레이 조정, 외부자원 링크, 자료대출상황 디스플레이 등 항목은 제외하고, 기본적인 검색 관련 열한개 항목만 살펴보았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2003년 IFLA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가 제시한 'Guidelines for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OPAC) Displays(draft)(이하 'OPAC 디스플레이 지침'이라 칭함)'<sup>8)</sup>의 항목들을 참조하여 관련된 디스플레이 기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하여 2011년 5월 10일부터 23일 사이에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청금록(靑衿錄)', '박세당', '사변록' 등을 테스트 단어로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고서(고도서)를 검색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기본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대등한 상태의 비교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자는 전형적 도서관의 목록 기술 방식 및 MARC 서지레코드 구조를 적용하여 구축한 고서용 OPAC인 한편, 후자는 다양한 형태의 역사자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정보검색 포털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OPAC의 표준 기능성이 구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이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이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기능에 대부분 구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비교를 시도하였다.

## 2. 선행연구

지난 198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일반적인 도서관 OPAC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고, 그밖에도 도서관에서 여러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 분야의 각종 데이터베이스, 정보검색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었다. 이제환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의 품질을 평가하면서, 이들이 구현하는 검색기능과 관련하여 OPAC의 기능성을 체크하였고,<sup>9)</sup> 서은경은 Cherry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캐나다의 대학도서관 OPAC을 분석할 때 사용하였던 181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서울, 경기지역의 24개 대학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의 OPAC 기능성과 인터페이스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sup>10)</sup> 윤정옥은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 OPAC 디스플레이를 비교하면서 검색 기능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sup>11)</sup> 또

8) IFLA Task Force on Guidelines for OPAC Displays, *Guidelines for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OPAC) Displays(draft), Draft for Worldwide Review*(Pari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2003), <<http://www.ifla.org/VII/s13/guide/opacguide03.pdf>> [cited 2005. 5. 5].

9) 이제환, "대학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의 품질 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1호(1999. 3), pp.1-29.

10) 서은경, "OPAC 시스템의 기능성 및 인터페이스 유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7권, 제4호(2000. 12), pp.187-206.

11) 윤정옥, "국립중앙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 OPAC 디스플레이의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1호

한 구중억과 광승진은 국내 상용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6개와 해외 시스템 8개를 분석하여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차세대 도서관 OPAC 인터페이스가 지향할 기능을 제안하였다.<sup>12)</sup>

특히 우리나라 고서목록의 온라인화 혹은 검색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는 강순애가 일찍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전산망을 형성하고, 목록정보, 해제, 원문, 검색정보시스템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제안하면서, 1997년 당시 구축이 진행되던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시스템과 성균관대학교 고문헌정보시스템을 비교·분석한 것이 있다.<sup>13)</sup> 강순애는 이후 해외 기관에 소장된 우리나라 고문헌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소장 한국전적 문화재 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과 국내 시스템과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sup>14)</sup> 한편 윤정옥이 우리나라 대학의 인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정보원이 매우 분산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주제 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종합목록, 서울대규장각, 장서각 등 한국학 정보원의 이용 비중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15)</sup> 그러나 그밖에는 이미 구축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같은 고서용 OPAC이나 다른 고서 관련 데이터베이스들의 기능성이나 활용도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다.

## II.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개요

### 1. 일반적 특성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이하 ‘한국고전적종합목록’ 혹은 ‘고전적종합목록’이라 부름)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고서목록의 온라인화 및 역사자료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대표적인 정보검색시스템이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은 1997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던 ‘국가디지털도서관 계획사업’ 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 고서목록 정보 6만 건과 고서 귀중본 본문 이미지 정보 3,000책(450,000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데서 시작되었다.<sup>16)</sup>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부터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 52개 국내기관과 일본 동경대학도서관 등 32개 해외기관의 고서 서지

(2006. 3), pp.263-291.

12) 구중억, 광승진, “차세대 OPAC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2호(2007. 12), pp.61-88.

13) 강순애, 전계논문.

14) 강순애,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08. 9), pp.61-79.

15) 윤정옥, “인문학자의 전자정보원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2009. 6), pp.5-29.

16) 강순애, “한국 고문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전망,” 전계논문, p.84.

레코드와 원문이미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sup>17)</sup>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은 2009년 당시 통계<sup>18)</sup>에 근거하여 볼 때, 2011년 현재 대략 42만여 건의 목록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도 고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전국의 전문정보센터가 소장, 제공하는 역사자료의 기본 서지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되었다.<sup>19)</sup>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우리나라 인문학 분야 연구자들의 전자정보원 이용행태 연구<sup>20)</sup>에서 한국학 관련 전자정보원 가운데 이용 빈도가 비교적 높은 정보원으로 언급된 적이 있다.

이 시스템 구축사업은 2000년 시작되었고, 2003년 기관 간 연계 포털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 통합 포털 시스템으로서 연계 기관 역사자료의 목록 및 기본 서지사항, 소장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각 전문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원문정보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 자료 원문에 대한 검색은 지원하지 않는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하여 경상대학교 문천각의 ‘남명학교문헌시스템’,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자료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등 24개 기관 28개 사이트를 연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10년 말 현재 9,458,869건의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고도서는 3,136,524종이 포함되어 있다.<sup>21)</sup>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관계를 보면,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관련링크’만을 제공하고 있는 한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연계된 통합검색 대상인 24개 참여기관 23개 사이트 가운데 하나로서 ‘목록·해제’로 분류되어 있다.

## 2. 자료의 분류와 기술

### 가. 분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자료의 ‘내용형식’에 따라 서지, 운서, 법전, 서화, 금석문, 방목/관안, 족보/계보/세보, 불전, 주석/평주/해제, 조약집/외교문서, 통계, 경전, 지지, 지도, 고문서 등 16개 카테고리 분류하였고, 판종을 금속활자본, 목활자본, 목판본, 필사본, 도활자본, 포활자본, 신연활자

17)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소개: 개요,”

〈<http://www.dibrary.net/boards/show/2203/8220/0.do>〉 [cited 2011. 5. 10].

18) 국립중앙도서관, “4. 도서관 정보화,” 2009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09, p.72.

〈[http://nl.go.kr/upload/nl/pds/research\\_data/year\\_2009/seji\\_report.html](http://nl.go.kr/upload/nl/pds/research_data/year_2009/seji_report.html)〉 [cited 2011. 5. 10].

1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koreanhistory.or.kr/intro/>〉 [cited 2011. 5. 10].

20) 윤정옥, “인문학자의 전자정보원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전계논문, p.17.

21) 윤소영, “한국학 자료의 보고: 국사편찬위원회 정보검색시스템,” 해외 한국학도서관 동향 보고서, 제4호(2010), pp.55-72.

본, 석판본, 유인본, 영인본, 사진판본, 미상, 기타의 13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디렉토리 브라우저를 할 수 있게 한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연계된 전문정보센터의 자료 전체에 대한 통합분류체계인 통합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통합 디렉토리는 3단계 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자료 형태에 따라 고도서, 고문서, 도서, 문서, 연속간행물, 고전국역서, 연구자료, 목록·해제, 인물, 지도, 사진, 연표, 멀티미디어자료, 유물·유적의 14개 카테고리로 자료를 분류하여 브라우즈 할 수 있게 한다. 2, 3단계는 자료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는데, 고서는 사부분류체계(經·史·子·集-類)로 세분되고, 고문서는 간찰·서간, 계문서, 고문 등 84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 기술

‘한국고전적중합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이 2000년 공포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고서용(KS X 6006-6)’을 자료의 기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sup>22)</sup>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제목, 생성자, 주제, 자료유형, 식별자, 발행자, 날짜, 요약정보, 포맷, 관련자료 및 메타데이터 정보라는 11개의 주요소와 20개의 하위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KHON(Korea History ONline)이라는 메타데이터 세트를 적용하고 있다.<sup>23)</sup>

<표 1> KHON 메타데이터

	주요소		하위요소	
1	title	제목	mainTitle	대표제목
			alternativeTitle	대체제목
2	creator	생성자	author	작성자
			editor	편집자
			docSender	발신자
3	subject	주제		
4	type	자료유형		
5	identifier	식별자	uri	식별기호
			url	위치정보
6	publisher	발행자		
7	date	날짜	issued	발행일
			created	생성일
			modified	갱신일
			docIssued	원자료발행일
			docCreated	원자료생성일
			dateEvent	사건발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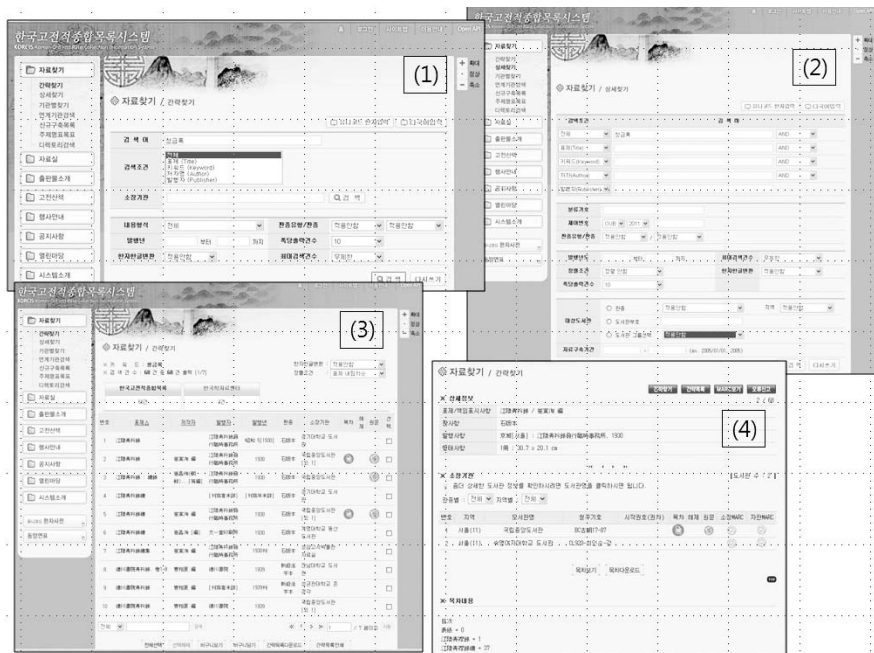
2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고서용-(KS X 6006-6)(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0).

23) 윤소영, 전계논문, p.58.

	주요소		하위요소	
8	description	요약정보	abstract	초록
			tableOfContents	목차정보
9	format	포맷	medium	파일형식
10	relation	관련자료	isPartOf	부분자료
			requires	의존자료
11	metaMetadata	메타데이터 정보	mdCenter	메타데이터센터명
			unit	단위

### 3. 검색 화면과 서지 레코드

〈그림 1〉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의 ‘간략찾기’와 ‘상세찾기’ 화면, 그리고 검색결과 간략목록과 서지레코드를 보여준다. (1)의 ‘간략찾기’ 화면은 한 개의 검색창에서 풀다운 리스트를 통해 표제, 키워드, 저자명, 발행자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며, 소장기관, 내용형식, 판중유형, 발행년 등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한다. (2)의 ‘상세찾기’는 표제, 키워드 등 필드별로 다섯 개의 검색창을 주며, 내용형식, 판중유형, 발행년 등 ‘간략찾기’와 동일한 검색조건 뿐만 아니라 분류기호, 제어번호로도 검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한 가지 크게 달라진 점은 ‘간략찾기’에서 소장기관의 리스트로 검색할 수 있었던 것을 ‘상세찾기’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1〉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의 ‘간략찾기’, ‘상세찾기’와 검색결과 리스트



‘상세찾기’에서는 ‘대상도서관’을 관중, 지역, 도서관부호, 도서관 그룹 선택으로 나누어 찾게 하는데, 앞서와 같이 소장기관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관중의 풀다운 리스트는 국립중앙도서관, 공공, 대학, 전문·특수, 초등학교, 중학교 등 사실상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의 소장기관과는 무관한 관중 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서관 그룹 리스트 또한 무관하게 서울시립공공도서관, 인천공공도서관, 대구공공도서관 등을 그룹으로 포함하고 있다.

(3)은 ‘간략찾기’에서 ‘청금록’을 검색한 결과 68건의 간략목록으로 레코드 번호, 표제, 저자, 발행자, 발행년, 관중, 소장기관 등의 서지정보와 더불어 목차, 해제, 원문 여부와 선택박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간략목록 상단에서 ‘청금록’이라는 질의어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검색 근거를 하이라이트해 주지 않는다. (4)는 간략목록에서 두번째 레코드인 ‘江陵靑衿錄’의 상세정보로 표제/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및 소장정보를 보여준다. 소장정보는 지역, 도서관명, 청구기호, 시작권호 등의 항목과 더불어 목차, 해제, 원문, 소장 MARC, 자관 MARC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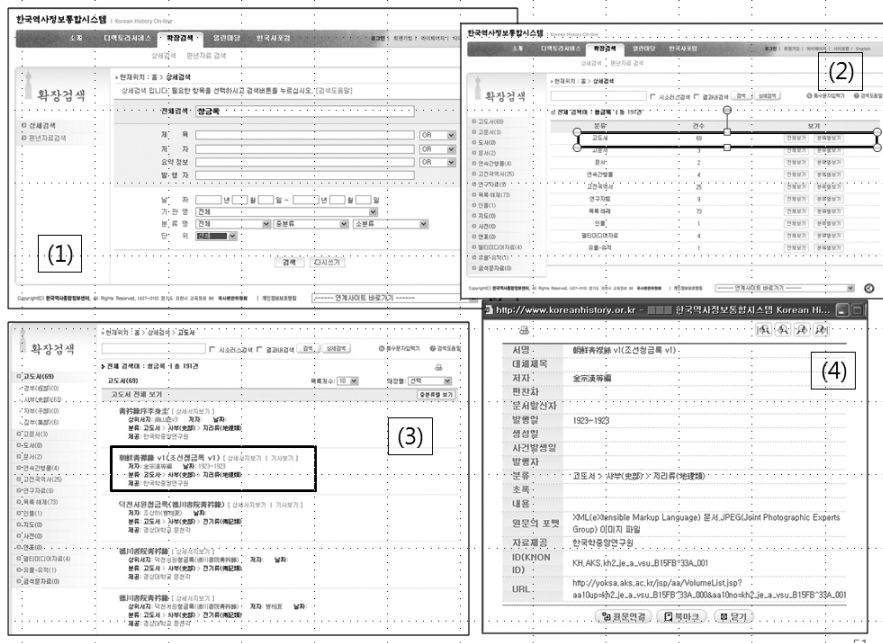
상세정보의 표제/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등 용어는 ‘한국목록규칙(KCR)’에서 사용하는 표준용어이다. IFLA의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 1.6항은 ‘이용자들이 도서관 전문용어와 표준에 익숙하다고 추측하지 말라 ... 전문용어를 회피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도서관 OPAC들이 이런 전문용어를 그대로 써왔으므로 어쩌면 이제는 이용자들도 익숙해질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도서관 전문용어 사용이 적절한 것인지는 차후에라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림 2〉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확장검색-상세검색’ 화면과 검색결과 리스트를 보여준다. (1)의 ‘확장검색-상세검색’ 화면은 제목, 저자, 요약정보, 발행자 검색창을 주고, 날짜, 기관명, 분류명, 단위로 검색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2)는 ‘전체’로 ‘청금록’을 검색한 결과 191건을 고도서(69건), 고문서(3건), 문서(2건), 연속간행물(4건) 등 자료 형태로 분류 리스트로 보여주며, 각 형태 별로 ‘전체보기’와 ‘분류별보기’를 할 수 있다. ‘고도서’를 ‘분류별보기’ 하면 검색결과 69건을 경부, 사부, 자부, 집부로 세분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검색결과 화면 왼쪽에는 동일한 결과를 분류 패킷과 같은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3)은 검색결과 가운데 ‘고도서’를 ‘전체보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 리스트로서 각 자료의 간략 레코드는 ‘상세서지보기’ 및 제목, 상위서지, 저자, 날짜, 분류, 제공 등의 서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공’은 경상대학교 문천각,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소장기관을 의미한다. 이 리스트에서 레코드 번호는 주어지지 않으며, 정렬의 기준도 알 수 없다. (4)는 결과 리스트에서 두번째 레코드인 ‘朝鮮靑衿錄’을 ‘상세서지보기’한 것으로 〈표 1〉에서 제시한 KHON 메타데이터를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의 검색결과 분류별 리스트와 (3)의 간략목록 상단에는 ‘청금록’이라는 검색질의어가

그대로 제시되고 있으며, (3)의 간략목록과 (4)의 메타데이터에는 검색 근거인 ‘청금록’을 하이러이트해 주고 있다.



〈그림 2〉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확장검색’과 검색결과 리스트

IFLA의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 1.2항은 ‘... 어떻게 디스플레이에 도달했는지 이용자들에게 명백하게 하라’고 제안하며, 그러기 위해서 검색결과 디스플레이에서 검색 근거가 된 용어를 맥락 안에 보여주고, 하이라이팅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강조해 주라고 하였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그 내용을 반영하지는 않았겠으나, 검색결과의 가시성을 높이도록 이를 적절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 Ⅲ. 검색 관련 표준 기능성의 비교

여기에서는 ‘한국고전종합목록’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Breeding이 제시한 OPAC의 표준 기능성 체크리스트에서 검색 관련 열한 개 항목을 기본 검색 기능, 연산자 사용, 결과 정렬, 검색 결과의 처리 기능 등 네 개 범주로 구분하여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검토 항목은 키워드 검색, 저자, 서명, 주제 브라우즈, 질의에서 불리안 연산자 사용(and, or, not), 인접연산자 사용

(adjacent, near), 적합성순 결과 정렬, 시대순 결과 정렬, 절단, 초기 단어 재입력 않고 탐색 수정 가능, 결과 집합 내 검색, 현재 세션의 검색 이력 보기와 불러오기, 및 개별 도서관이나 장소로 결과 제한 기능의 기능성을 포함한다. <표 2>는 각 범주 별로 기능성의 적용 현황을 보여준다.

<표 2> OPAC의 표준 기능성

구분	소구분	OPAC의 표준 기능성	고전적	역사정보
1	가	키워드 검색	○	○
	나	저자, 서명, 주제 브라우즈	X	X
2	가	질의에서 불리안 연산자 사용(and, or, not)	○	○
	나	인접연산자 사용(adjacent, near)	X	○
	다	절단	○	X
3	가	적합성순 결과 정렬	○	X
	나	시대순 결과 정렬	○	○
	다	절단	○	X
4	가	초기 단어 재입력 않고 탐색 수정 가능	○	○
	나	결과 집합 내 검색	○	○
	다	현재 세션의 검색 이력 보기와 불러오기	X	X
	라	개별 도서관이나 장소로 결과 제한 기능	○	○

## 1. 기본 검색 기능

### 가. 키워드 검색

키워드 검색은 색인된 필드의 어디에서든 어떤 단어든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종종 너무 많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을 포함한 아카이브 이용자들은 알고 있는 자료를 찾을 때는 키워드 검색을 매우 중요시하고, 일반적으로 인문학자들에게 이름, 장소, 서명 및 주제 관련 용어들을 찾을 때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바 있다.<sup>24)</sup>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기본적으로 키워드 검색방식을 지원하며 ‘간략찾기’ 및 ‘상세찾기’에서 표제, 키워드, 저자, 발행자로 검색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간략찾기’ 및 ‘상세찾기’에서 검색조건이 ‘키워드’인 것은 자료의 KORMARC 레코드에서 653 필드에 해당 키워드가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서 예를 들어 저자로 ‘박세당’을 검색할 경우 모두 88건의 레코드가 검색되지만, 키워드로 ‘박세당’을 검색하면 박세당이 주(註)를 단 莊周의 ‘南華經註解刪補, 卷1-6’ 한 건만이 결과로 나온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도 ‘기본검색’은 키워드 검색이며, ‘확장검색’의 ‘상세검색’에서는 제목, 저자, 요약정보, 발행자의 4개 필드에서 키워드 검색을 허용한다. 이 시스템이 사용하는 KHON

24) Jennifer Schaffner, *op. cit.*, pp.6-7.

메타데이터에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의 KORMARC 653 필드와 같이 특정한 키워드 관련 요소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나. 이름, 서명, 주제 브라우즈 검색

브라우즈 검색은 목록카드를 검색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름, 서명, 주제로 된 표목이나 색인의 알파벳순 혹은 가나다순 리스트를 훑어보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브라우즈 검색은 먼저 검색할 색인의 유형을 선택하고, 표목의 첫 단어나 단어들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입력된 단어로 시작하는 표목 부분을 스캔하여 결과 리스트를 보내주는 것이다.<sup>25)</sup> 예를 들어 미국의회도서관 목록은 '기본검색'에서 표제, 저자/창작자, 주제, 이름/표제, 시리즈/통일표제 키워드 검색과 더불어 표제(Title Begins With), 저자/창작자, 주제, 청구기호 브라우즈 검색을 허용하고 있다.<sup>26)</sup>

그러나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둘 다 저자, 서명 및 주제 브라우즈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들이 주제 브라우즈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Schaffner가 지난 삼십여 년 동안 아카이브 및 특수컬렉션 이용자들이 무엇보다도 '주제(Aboutness)' 정보를 사용한 검색을 원하고, 적합성을 중시한다고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이들 두 시스템 모두 자료 형태에 따른 광범한 분류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제표목, 분류기호 등 아무런 주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한 제한점이 된다고 하겠다.

## 2. 연산자 사용

### 가. 질의에서 불리안 연산자 사용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모두 질의에서 and, or, not의 불리안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다. 두 시스템 모두 동일한 필드 안에서 복수의 단어를 검색할 때에는 단어들을 and로 결합하도록 설정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필드들을 검색할 때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필드 간 and로 설정하였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필드 간 or로 디폴트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서 '전체'로 '박세당'과 '사변록'의 두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했을 때는 '四書思辨錄', '四書思辨錄, 1-2'라는 두 건의 서지레코드를 검색해 냈고, '표제'로 제한했을 때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한편 표제를 '사변록', 저자를 '박세당'으로 입력하여 복수의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했을 때, 결과는 앞서와 동일하게 '四書思辨錄', '四書思辨錄, 1-2' 2건이 검색되었다. 이는 키워드, 저자, 발행자로 필드를 제한하여 검색할 때, 디폴트는 복수의 필드들을 'and'로 처리

25) Deborah Fritz and Richard Fritz, *MARC21 for Everyone: A Practical Guide*(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3).

26)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Online Catalog," <<http://catalog.loc.gov>> [cited 2011. 5. 10].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전체검색’으로 ‘박세당’과 ‘사변록’의 두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는 고도서 16건, 목록·해제 5건 등 모두 82건을 검색해 냈고, 이들을 ‘제목’으로 제한하여 검색했을 때는 고도서 8건 등 모두 18건이 검색되었다. 한편 제목을 ‘사변록’, 저자를 ‘박세당’으로 입력하여 복수의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했을 때, 이들을 ‘or’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색결과 는 모두 1,538건이었다. 이 가운데 고도서는 1,107건, 목록·해제 111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디폴트인 ‘or’를 ‘and’로 변경하여 검색한 결과는 모두 17건으로 고도서 9건, 고전국역서 4건, 목록·해제 4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복수의 필드를 동시에 검색할 때 디폴트를 and로 설정해야 하는가, or로 설정해야 하는가는 규정된 바가 없다. 또한 시스템이 검색 인터페이스에 어떻게 설정해 놓든 이용자들이 필드 간 불리안 연산자를 and 혹은 or로 확인하여 바꿀 수 있으니 문제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서 목록 혹은 포털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복수의 필드를 동시에 검색할 때 검색 범위를 확장하기 원하는가, 혹은 축소하기 원하는가, 또한 and 혹은 or라는 연산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가, 그리고 검색 시 설정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요구에 맞추어 변경하는가 등의 사항은 이용자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나. 인접연산자(adjacent, near) 사용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인접검색 기능을 제공하지 않지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인접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 ‘박세당’과 ‘사변록’이라는 두 단어가 순서대로 인접하여 있는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박세당 /W2 사변록’을 입력하고, 이들이 순서와 무관하게 인접하여 있는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박세당 /N2 사변록’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박세당 /W2 사변록’으로 검색한 결과는 고도서 2건으로 ‘답李九卿：果菴先生文集卷四’와 ‘승정원일기 속중 29년：기사명 인견에 閔鑣厚가 입시하여 科獄罪人 趙大壽가 병이 심함, 朴世堂 思辨錄의 辯破, 水災를 당한 경기 지역의 分等에 대해 논의함’의 기사를 포함한다.

이를 ‘박세당 /N2 사변록’으로 검색한 결과는 4건으로 상기한 2건의 자료와 더불어 ‘답李九卿’의 국역자료 1건, 목록·해제로 분류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박세당의 ‘四書思辨錄’ 1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동일하게 목록·해제로 분류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의 레코드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박세당의 ‘四書思辨錄’ 및 규장각 소장 ‘四書思辨錄, 1-2’의 서지레코드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四書思辨錄’은 규장각 소장본을 마이크로필름화 한 것으로, 실제 고도서는 규장각 소장

본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박세당 /N2 사변록’으로 검색했을 때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의 레코드들도 검색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였다.

#### 다. 절단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기본검색 시 우절단 키워드 검색 방식을 사용하며, 일치검색을 위해서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의 일치검색을 위하여 전체를 “‘청금록’”으로 검색한 결과는 ‘江陵靑衿錄’, ‘江陵靑衿錄續’, ‘德川書院靑衿錄’ 등 20건이 검색되었다. 이들의 ‘MARC 보기’를 보면 모두 653 필드에 ‘청금록’이란 키워드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앞서 일치검색이 아닌 ‘청금록’으로 검색했을 때 검색된 68건 가운데 서명은 같지만 소장처는 다른 ‘德川書院靑衿錄’이 일치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청금록’” 일치검색결과 20건에 포함되지 않은 ‘德川書院靑衿錄’(1939년간, 성균관대학소장)의 ‘MARC 보기’에는 653 필드에 ‘덕천서원청금록’이란 서명이 하나의 키워드로 들어 있었다. 반면에 “‘청금록’” 일치검색결과 20건에 포함되었던 ‘德川書院靑衿錄’(1939년간, 국립중앙도서관소장)은 653 필드에는 동일한 서명이 ‘덕천서원’, ‘청금록’이란 두 개의 키워드로 분리되어 들어있었다. 결국 653 필드에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는가에 따라 일치검색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기본검색에서 절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금록’을 검색한 결과는 ‘靑衿錄序李身圭’, ‘朝鮮靑衿錄, v.1’, ‘德川書院靑衿錄’ ... 등과 같이 나타난다.

### 3. 결과 정렬

#### 가. 적합성순 결과 정렬

Schaffner는 아카이브와 전문컬렉션 이용자들은 학술연구자든 학생이든 목록의 가용성(usability)에서 검색결과의 순서를 중요시하며, 그 결과가 ‘적합성(relevance)’에 따라 순위화되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sup>27)</sup>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리리로 접근했을 때 ‘정확도’로 검색결과를 정렬할 수 있게 하지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정확도 혹은 적합성에 따른 정렬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직접 접근했을 때와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리리를 통해서 접근했을 때 검색결과의 정렬 순이 다르다. 먼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으로 직접 ‘청금록’을 검색했을 경우 검색된 레코드 수는 68건으로 리스트는 ‘江陵靑衿錄’, ‘江陵靑衿錄: 續錄’ ... 등과 같이 표제의 가나다순으로 정렬된다. 이 리스트는 표제의 오름차순뿐만 아니라 저작자, 발행자 및 발행년도의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각각 재정렬할 수 있게 하지만, 정확도 혹은 적합성 순으로 정렬은 할 수 없다.

27) Jennifer Schaffner, *op. cit.*, pp.8-9.

반면에 디브리리 사이트에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으로 제한하여 동일한 '청금록'을 검색했을 때 검색 레코드 수는 68건으로 같지만, 리스트는 '정확도'순으로 정렬된다. 그러나 '朝鮮靑衿錄', '海東靑衿錄', '江陵靑衿錄' ... 등 순으로 정렬된 '정확도'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검색결과는 기본적으로 통합 디렉토리 상의 대분류에 따라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정렬되고, 필요 시 서명/기사명, 저자, 날짜, 제공 등으로 재정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분류 이후 실제 검색결과는 반드시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본검색, 즉 통합검색창에서 '청금록'을 검색한 결과는 먼저 대분류된 그룹별 검색 건수의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이 경우엔 모두 191건이 검색되었고, 이들은 고도서 69건, 고문서 3건, 문서 2건, 연속간행물 4건, 고전국역서 25건, 연구자료 9건, 목록·해제 73건, 인물 1건, 멀티미디어자료 4건, 유물·유적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먼저 고도서 69건의 리스트를 보면 '靑衿錄序李身圭', '朝鮮靑衿錄, v.1', '德川書院靑衿錄' ... 등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서명의 가나다순이 아니다. 각 레코드의 '상세보기'를 일일이 살펴봐도 서지요소 가운데 무엇이 정렬의 기준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검색결과를 서명/기사명, 저자, 날짜, 제공 등의 기준으로 재정렬할 수 있으므로, 서명/기사명으로 재정렬한 결과는 '1. 公州鄕校靑衿錄', '2. 公州鄕校靑衿錄' 등 5건이 열거된 후, '(승정원일기 영조 50년) 甲午正月二十四日辰時, 上御集慶堂',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甲寅七月二十七日午時, 上御熙政堂' 등 순으로 열거되어 앞서 제공된 리스트의 순서와는 다르므로, 분명 서명/기사명이 정렬 기준은 아니다. IFLA의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에서 '6. 여러 레코드들이 검색될 때 무작위가 아니라 의미있는 순서로 레코드들을 디스플레이 하라'고 한 것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73건이 검색된 목록·해제 그룹 또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록·해제 73건은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수록자료 69건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4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리스트에서도 '全州生進靑衿錄', '朝鮮靑衿錄', '德川書院靑衿錄靑衿錄', '鳳山鄕校靑衿錄' ... 등으로 정렬된 기준을 알 수 없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통합 디렉토리 분류체계에서 이처럼 고도서와 목록·해제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도서는 자료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고, 목록·해제는 자료의 출처에 따른 분류이므로, 실제로는 후자가 전자의 상위에 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동등한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록·해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의 태반이 고도서임에도 이들은 별도로 접근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item level' 레코드와 'collection level' 레코드가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사용하는 이러한 분류체계가 "연계되는 역사자료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성"<sup>28)</sup> 되었다고는 하나, 이용자의 편의성이 과연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28) 윤소영, 전계논문, p.60.

#### 나. 시대순 결과 정렬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발행년도의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허용한다. ‘청금록’의 검색 결과를 발행년도의 내림차순으로 재정렬한 결과는 ‘刊寫年未詳’의 필사본 ‘靑衿錄’, 목활자본 ‘朝鮮靑衿錄’ 등이 맨 앞에 배열되고, 이후 발행년도 순으로 정렬이 된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검색결과와 간략목록이 검색된 각 자료에 대하여 표제, 저자, 발행자, 발행년, 판종, 소장 등의 정보를 보여주면서 정렬의 기준이 되는 필드에 △ 혹은 ▽의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발행년도의 내림차순 정렬일 경우 ‘발행년△’과 같이 표시해 준다. 재정렬 조건은 검색결과 간략목록 오른쪽 상단 ‘정렬조건’의 풀다운 리스트를 클릭함으로써 설정할 수도 있지만, 간략목록에서 필드명을 클릭함으로써 설정할 수도 있어 비교적 편리하게 되어 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날짜’로 검색결과와 시대순 정렬을 허용한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검색결과 ‘고도서’ 간략목록은 서명/기사명, 상위서지, 저자, 날짜, 분류, 제공 등의 정보를 보여준다. 앞에서 검색한 ‘청금록’의 고도서 69건을 ‘날짜’순으로 재정렬하면, ‘德川書院靑衿錄卷六’, ‘德川書院靑衿錄卷六’, ‘德川書院靑衿錄卷五’, ‘德川書院靑衿錄卷五’ … 등과 같이 정렬된다. 이처럼 간략목록의 앞부분에 정렬된 자료 48건은 ‘날짜’가 미상이므로 어떤 근거로 정렬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49번째 자료인 ‘光海君日記(光海 03)/조선왕조실록정족산본’의 레코드부터 ‘날짜’ 데이터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자료의 ‘날짜’는 ‘1612-04-12(음)’이며 ‘상세서지’의 메타데이터를 보면 이것이 ‘사건발생일’임을 알 수 있다. 이후 레코드들은 ‘날짜’의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있고, 이를 오름차순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 4. 검색 결과의 처리 기능

#### 가. 초기 단어 재입력 않고 탐색 수정 가능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검색창에 단어 입력 시 이전 검색어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박’을 입력하면 이전에 검색했던 ‘박세당’, ‘박세당 사변록’ 등의 리스트가 보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전 검색어들은 ‘다시 쓰기’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삭제할 수 있다.

한편 디브러리를 통한 ‘한국고전적종합목록’ 검색 시는 초기 단어를 재입력 않고 탐색을 수정하거나 반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청’을 입력하자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검색했던 ‘청금록’이란 나타나거나, 그와 관련된 리스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개구리 아이들’, ‘청원관광안내도’, ‘청계천 복원공사 모니터링 및 물순환해석’ 등 ‘청’자는 들어가지만 지금까지의 검색과 무관한 리스트가 나타났다. 시험 삼아 이 가운데 ‘청원관광안내도’를 클릭한 결과는 ‘요청하신 청원관광안내도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총 0건)’이라는 메시지와 ‘입력한 검색어 “청원관광안내도”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는 안내문이 나왔으며, ‘청개구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디브리리가 가진 검색의 '자동완성기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사용자의 검색 편의를 위해 검색 입력창에 입력되는 검색어의 유형을 분석하여 많은 수의 사용자가 자주 찾는 검색어로 자동 완성해주는 서비스'<sup>29)</sup>로서의 효과는 다소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도 검색창에 단어 입력 시 이전 검색어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재사용하거나 수정하여 검색할 수 있게 허용한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박'을 입력하면 이전에 검색했던 '박세당', '박세당 /w2 사변록' 등의 검색어 리스트가 보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나. 결과 집합 내 검색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검색결과 집합 내 표제, 저자명, 발행자, 키워드 등을 검색조건으로 하여 재검색을 허용한다. 그러나 '결과 내 재검색'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검색결과 화면 하단에 검색창과 함께 상기 검색조건이 풀다운 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검색창으로 잘못 알 수도 있다. 그러나 디브리리를 통해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을 검색하였을 경우에는 검색결과 화면 상단 검색창 옆에 '결과 내 재검색'을 클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원래 사이트처럼 표제, 저자명, 발행자, 키워드 등 검색조건을 줄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서 '청금록'을 검색한 결과 68건이 검색되었고, 이를 '표제'를 재검색 조건으로 하여 '조선'을 입력한 결과는 '朝鮮靑衿錄' 등 27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디브리리에서는 아무런 재검색 조건을 설정하지 않은 결과로 역시 '朝鮮靑衿錄' 등을 포함한 32건이 검색되었다. 단 디브리리는 원문, 언어, 발행년대, 주제, 자료제공처의 다섯 개 패킷으로 제한한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언어 패킷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과 같이 한자로 된 자료를 무조건 '다국어'로 분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서 결과 집합 내 검색 시에는 검색결과 리스트 상단에 원검색어와 재검색어를 조합하여 '※ 키워드: 청금록 AND 조선 zTITLE'와 같은 형태로 질의문을 보여준다. 그러나 디브리리는 검색결과 리스트 상단에 '요청하신 조선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총 32건)'와 같은 메시지를 보여줄 뿐, 이것이 '청금록'의 검색결과를 재검색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도 결과 집합 내 검색을 허용한다. <그림 2>의 화면 (2)와 (3)에서 보는 것처럼 검색결과 화면의 상단에 검색창을 주고 '결과내검색'을 허용한다. 그러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처럼 표제, 저자명, 발행자, 키워드 등을 검색조건으로 줄 수는 없게 되어 있다.

#### 다. 현재 세션의 검색 이력 보기와 불러오기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둘 다 현재 세션의 검색 이력 보기와 불러오

29) 디브리리, "검색 도움말."

<[http://www.dibrary.net/search/common/pop/ko\\_KR\\_help\\_korcis.htm](http://www.dibrary.net/search/common/pop/ko_KR_help_korcis.htm)> [cited 2011. 5. 23].

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검색창에서 이전에 사용한 검색어의 리스트를 볼 수는 있지만, 실제 검색 이력까지는 알 수 없다. 이를테면 ‘박세당’이라는 이전 검색어를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전체로 검색했는지, 저자명 필드로 제한하여 검색했는지 등은 알 수 없다.

#### 라. 개별 도서관이나 장소로 결과 제한 가능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검색 시점에 ‘간략찾기’에서 ‘소장기관’을 검색하여 제한하거나, ‘기관별 찾기’를 통해 개별 도서관이나 장소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 검색한 결과를 개별 도서관이나 장소로 제한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만이 아니라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 52개 국내 기관 및 도서관의 자료, 그리고 미국의회도서관, 중국북경대학교도서관 등 33개 국외기관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고서종합목록이다. 그렇다면 검색 전만이 아니라 검색 후에도 개별 도서관이나 장소로 검색결과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에도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한편 ‘기관별 찾기’에서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네 개 기관을 선택하고 ‘청금록’을 검색한 결과는 ‘全州生進靑衿錄’, ‘朝鮮靑衿錄’ 등 모두 4건의 레코드를 검색결과로 가져왔다. 그러나 검색결과 상단에 ‘※ 키워드: 청금록 AND 211046, 211048, 347035, 341054 zLIB\_CODE’와 같은 형태로 질의문을 보여줌으로써 검색 시 선택한 기관이 아닌 기관 코드만을 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이들 중 어떤 코드가 어떤 기관에 해당하는 지를 바로 알기는 어렵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상세검색에서 기관명으로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게 하지만, 검색결과를 얻은 후에는 제한할 수 없다. 또한 검색 시에도 기관명 풀다운 리스트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한 개 기관 혹은 전체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두 개 이상의 기관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이 ‘기관별찾기’를 통해 복수의 기관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게 한 것보다는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검색결과 상단에 ‘전체 검색어 : 청금록 AND 한국고전적종합목록 | 총 69건’과 같은 형태로 질의어를 기관명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것은 앞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이 기관명을 211046과 같은 코드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것보다는 낫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검색 관련 기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Breeding의 체크리스트는 미국 및 유럽의 주요한 도서관들이 사용하는 상용 도서관자동화 시스템의 OPAC 모듈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 표준기능을 표시한 것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Aleph 500, Polaris, Innovative Interfaces 등 도서관자동화 시스템들은 이러한 기본기능의 “구현 여부”를 이제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미 이십여 년 이상 이런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 OPAC들은 아직도 이러한 기능의 “구현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같이 특수한 주제 분야의 시스템들에서는 그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분석 대상이 일반 대출을 하지 않는 고서용 OPAC과 정보포털이므로 Breeding이 제시한 표준 기능성 열여섯 개 항목 가운데 상호참조, 레코드와 색인 디스플레이 조정, 도움말 디스플레이 조정, 외부자원 링크, 자료대출상황 디스플레이 등 항목은 제외하고, 기본적인 검색 관련 열한개 항목만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키워드 검색, 질의에서 불리언 연산자 사용, 시대순 결과 정렬, 초기 단어 재입력 않고 탐색 수정 가능, 결과 집합 내 검색, 및 개별 도서관이나 장소로 결과 제한 가능 등 여섯 개의 기능성은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자, 서명, 주제 브라우즈와 현재 세션의 검색 이력 보기와 불러오기는 두 시스템 다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인접연산자 사용 기능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만이 제공했고,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은 디브리리를 통한 검색에서만 적합성에 따른 결과 정렬 기능을 제공하였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열한 개 표준 기능성 모두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이미 표준화 단계를 넘어서서 차세대 OPAC으로까지 급속히 나아가고 있는 일반적 OPAC의 발전 속도에 비하여 다소 지체된 지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 두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된 시점이 2000년대 중반 이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불과 오년 여 역사를 가졌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성숙단계에 도달해 있던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가진 기본적인 검색 관련 기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OPAC이 아니고, 포털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검색 관련 기능성 일부만을 살펴보았을 뿐이며, 이 시스템 이용자들의 실제적 요구와 이용행태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연구가 진행되었던 2011년 5월 말 현재 ‘한국고전적종합목록’의 일일 방문자 수가 대략 70-100명 정도이며, 누적 방문자 수가 216,454명에 이른 것을 보면 중복 방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꾸준히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서 관련 정보원으로서 가장 큰 규모이며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한국고전적종합목록’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이 대부분의 일반 OPAC에서 구현되어 있는 검색 관련 표준 기능성이 미비하고,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이용자 검색 인터페이스의 목적은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요구를 표현하고, 질의를 구성하고, 탐색결과를 이해하며, 자신의 정보추구 노력의 진행을 추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sup>30)</sup> 이러한 목적은 검색 시스템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의 유형이 무엇이든, 또한 정보원이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과 같은 고서용 OPAC이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같은 정보포털이든 이들의 검색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이나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수록하고 있는 고서 관련 자료의 콘텐츠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접근을 위한 기능적인 면은 미흡한 상태다. 이처럼 이전 세대에서 전승된 가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보다 편의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여기서 미비하다고 지적된 몇 가지 기능들을 부분적으로라도 개선하고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기본"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실마리로 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사편찬위원회라는 운영주체가 시스템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시스템의 이용자가 누구인지, 고서목록이나 혹은 포털을 이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이용행태를 갖는지 등 기본적 이용자 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OPAC의 표준적 기능들은 그동안 수행된 무수한 OPAC 이용자 연구의 결과로서 파악되고 구현된 것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서라는 특수한 자료의 목록 이용자는 일반 OPAC 이용자와 같은지, 혹시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얼마나 다른지 누적된 연구들과 비교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시스템 기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30) Marti Hearst, "Ch.1. The Design of Search Interfaces," *Search User Interfaces*(Cambridge Press, 2009), <[http://searchuserinterfaces.com/book/sui\\_ch1\\_design.html](http://searchuserinterfaces.com/book/sui_ch1_design.html)> [cited 2010. 1. 23].